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한인 기독교 실업인들의 모임인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회장 강승태, 이하 기독교실업인회)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이다.

차세대 청소년 리더 양성을 위해 열리는 이 대회는 다음달 8일(월) 오전 11시 로스코요테스골프 클럽(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대회의 참가비는 170달러(그린피와 저녁 식사비 포함)이며 접수 기한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다. 출인원은 상금 2만 달러이다.

안신기 총괄 위원장은 "제1회 대회 후에는 20명에게 2,000달러씩 총 4만달러, 2회에는 15명에게 1,000달러씩 1만 5,000달러를 장학기금을 지급했다"라며 "올해에는 3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 행사 및 장학기금 신청 문의: (909) 677-0028

## ACSI 교사 자격증 취득 무료 세미나 Global Vision School

교육 선교를 위한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교사 자격증 취득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Global Vision School이 무료로 여는 이번 세미나는 3월 19일(화) 저녁 8시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는 ●ACSI 사립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 자격증의 의미 ●ACSI Certificate 종류 ●ACSI Certificate 자격증 신청 절차와 방법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CPoE) 교육 절차와 방법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특별 교사 자격 및 절차 ●유치원 원장 및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해 다룬다.

참가 신청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KGBqFM-L4dF1kMEsdVf1gy-BibNi0Iij53FYqEjUBRDvThg/viewform?pli=1>에서 할 수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永生)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不生)'을 설교합니다. 여기에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과연 즐겁기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즐겁게만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도 한때가 지나 가면 그만인 것은 아닐까요? 변화가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과연 행복을 담보해줄까요? 물론 즐거움으로만 가득 찬 세상에서 영원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즐거움만 있는 곳에서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조차 없겠지요. 괴로움이 있기에 즐거움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삶 또한 죽음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오히려 삶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생동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만 있다면 삶을 생생하게 만끽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 어느 사나이의 집에 아름답고 기품 있어 보이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저는 공덕녀(功德女)라 합니다."  
"무엇을 하는 본인지요?"  
"소녀에게는 묘한 재주가 있어서, 저를 보는 사람은 모두 기분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또한 저와 함께 있으면 재물이 모이고 수명이 늘어나며 운수대통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사나이는 흔쾌히 수락했지요. 그런데 조금 후, 또 다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앞의 여인과는

정반대로 추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저는 흑암녀(黑暗女)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저 또한 묘한 재주가 있어 저를 보는 사람은 모두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또한 저와 함께 있으면 부유한 자가 가난해지고 수명이 줄어들며,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지지요."  
사나이가 기겁을 하여 쫓아내려 하자, 그녀가 말했다.

"앞서 온 공덕녀는 저의 언니입니다. 저희 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다녀야 하기에, 저를 쫓으려면 언니도 함께 내쫓아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에, 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변화합니다. 일단 존재한다면 그 무엇이든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재라는 말 자체가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변화가 없다면 존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있으므로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으므로 시간이 있습니다. 존재는 곧 시간이며,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인 모든 것을 수반함을 의미합니다. 존재는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끝에는 즐거움이 있으며, 즐거움이 다하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천당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복락이 있으면 재앙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 곳에서 악은 더욱 드러나며, 악이 있는 곳에서 선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상의 방

법은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당에서 일시적인 복락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복락이 다하면 다시 인간세상이나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상의 방법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중생들의 복락을 위하여 기꺼이 다시 몸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보살님(부처님과 중생의 교량역할을 하는 이)이십니다. 예컨대 지장 보살은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하지만 중생을 가없이 여겨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남김 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성불을 유보하고 보살로 머물러 계시면서 지옥이 완전히 비워지기까지 성불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고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무심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일부러 마음을 일으켜 중생들을 위하여 이 사바세계에 머무르며 헌신하는 분들이 바로 보살입니다.

죽음은 삶을 비취주는 불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삶을 비취주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빛이 없는 삶이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삶입니다. 죽음은 삶의 친구이며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죽음을 만큼 열심히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 그 죽음 앞에서 뗏뗏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호 스님-

#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